

1992년 1월 29일 제123회 중의원 본회의

○ 일시: 1992년 1월 29일(수) 오후 2시 개의

○ 발언자:

- 가네코 미쓰히로(金子滿廣) 의원(정치가, 일본공산당 소속 중의원 의원. 일본공산당 서기국장, 부위원장, 통일전선부장, 대중운동위원회 위원장, 국제위원회 위원장. 세계평화협의회 부의장)
- 미야자와 기이치(宮澤喜一) 내각총리대신(대장성 관료, 정치가,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경제기획청 장관, 중의원 의원, 통상산업대신, 외무대신, 내각관방장관, 부총리, 대장대신, 우정대신, 농림수산대신, 재무대신, 자민당 총무회장, 자민당 총재)
- 오우치 게이고(大内啓伍) 의원(중의원 의원, 후생대신, 민사당 위원장, 자유연합 총재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05254X00319920129&spkNum=6¤t=32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공산당의 가네코 의원이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면서 보상을 위한 특별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- ▷ 가네코 “(전략) 총리가 조선인 **중군위안부**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말로 사죄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지 않는 것은, 전쟁에 대한 반성이 근본적으로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**중군위안부** 문제에 대한 정부 간 교섭을 즉시 시작하고 보상을 위한 특별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, 총리의 생각을 묻겠습니다. (박수)”

(중략)

- ▷ 미야자와 국무대신 “(전략) 그리고 침략적 사실 운운합니다만, 우리나라가 과거에 전쟁을 통해 이웃 국가 등의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. 이러한 우리나라의 과거 행위에 대해 침략적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는 바입니다.

그리고 이른바 **중군위안부**라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다고 생각합니다. 결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평화국가로서의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. 현재, 이와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을 지켜보면서 정부는

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데 더 진력하고 있습니다. (중략)”

(중략)

- ▷ 오우치 “(전략) 또 총리는 올해 1월 1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. 양국의 우호친선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아시아와 세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나 이번에 우리나라가 약속해온 **위안부**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대응과 무역 불균형 시정 등에 관련해서 만약 그 실행에 대한 양국 간 이해가 엇갈린다면, 향후 양국 국민의 상호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총리로서 무엇을 약속하고 실행하려고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.”